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7호 【루게 제23414호】 주체100(2011)년 4월 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도춘동지,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어버이장군님을 또다시 모시는 경사에 접한 영광의 땅 자강도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

있었다.

올해에 인민생활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천한 기세로 대고조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선군의 나날들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자강도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생산지령실, 전기로, 액체산소분리장치를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강도제련소는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의 하나이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의 류산생산공정과 액체산소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기로와 전로를 각각

1기씩 증설하여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함으로써 2년사이에 유색금속생산을 무려 2.4배로 끌어올리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대폭 낮추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시설비료로 장비된 전기로와 전로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쇠물폭포와 새로 꾸러진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보시고 제련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짧은 기간에 자랑할만 한 훌륭한 일을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제련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업무를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애국의 열념을 안고 기술개진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 새로운 생산기술공정들을 확립함으로써 유색금속생산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전변은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발전에 있다는 원리를

다시금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제련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자기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이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만든 여러가지 일용필수품들을 보시고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그들의 인민적부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실태를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기업소에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에게 제일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회관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기업소의 로동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문화거점을 마련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내부장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수도의 극장에 못지 않는 훌륭한 문화회관을 자체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문화회관에 꾸러진 화면반주음악실에서 노래반주기계를 리용하여 부르는 로동자들의 노래를 몸소 들어주시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자강도제련소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최근년간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는 기업소일군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있게 진행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제련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철저히 필요한 유색금속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하여서는 제련소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능력확장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제련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제련의 실수

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제련소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서는 련관된 광산들에서 질 좋은 정광을 더 많이 제련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2009년 2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을 종전에 비해 1.3배로 장성시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특히 다이아생산을 국산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0여종의 다이아를 새로 개발하였으며 최첨발전소건설장,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다이아를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형직장과 완성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오늘의 이 자랑스런 전변을 안아오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지난 시기 수많은 각종 다이아를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특운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여러차례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과정에 기업소가 숨죽은 공장으로부터 기운차게 돌아가는 공장으로, 고무냄새가 나던 공장으로부터 맑은 공기가 흘러넘치는 공장으로 일신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전변은 그 어떤 시련과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려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위대한 정신력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료전기재의 급격한 장성으로 하여 다이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철저히 필요한 다이아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생 산 을 높 은 수 준 에 서 정 상 화 하 고 있 는

자 강 도 내 공 장 , 기 업 소 들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2 면 에 서 계 속

특히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 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다이아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공장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신을 동을 활발히 벌려 든든하고 질긴 다이아를 생산해냄으로써 압록강다이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자재를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합성고무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

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다이아의 주원료인 고무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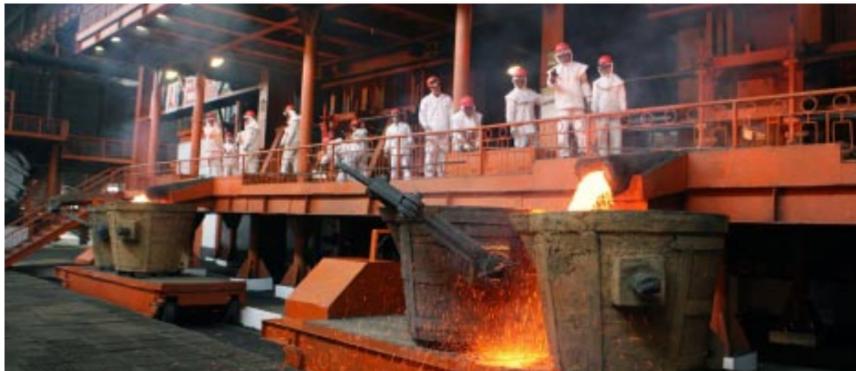
압록강다이아공장에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어있고 로동계급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이에 맞게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다이

아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다이아를 더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로동자들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며 그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또다시 찾아오시여 자기들을 따듯이 고무해주시고 비약의 활로를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영광을 지닌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유창동지와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를 비롯한 도의 책임일꾼들, 강계 시내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 선군시대의 근로자들과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단은 설화와 합창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내》,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 《우리 수령님》, 《우리 머느리》, 녀성민요4중창 《장군님 꽃피우신 내 조국아라요》, 녀성4중창과 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녀성민요독창 《비날론 삼천리》, 혼성2중창 《우리 집사람》, 합창 《발걸음》, 《최고사령부 병기창 되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예술단은 설화와 합창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내》,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 《우리 수령님》, 《우리 머느리》, 녀성민요4중창 《장군님 꽃피우신 내 조국아라요》, 녀성4중창과 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녀성민요독창 《비날론 삼천리》, 혼성2중창 《우리 집사람》, 합창 《발걸음》, 《최고사령부 병기창 되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자강도에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시대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을 보면서 아버지장군님을 따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치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잊을수 없는 역사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총공격을 과감히 벌려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열정과 광만이 흘러넘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예술창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견결한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예술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이룩하게 투쟁한 결과 형상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진지한 창작태도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것이 바로 주제예술의 기본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자강도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며 따뜻한 손잡이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6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주체적인 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공화국의 강성변역을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통성변역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혁명렬사들의 넋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화환 진정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6일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친위전사의 숭고한 귀감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총칭하게 받드시고 선군조선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녀장군의 혁명생애를 돌이켜 보며 목상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조선중앙통신】

선군정치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신분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신문이 글 게재

태양절기념토론회가 네팔, 프랑스에서 3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들에는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민족민주당,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체연구소, 선군정치지지회,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 등 해당 나라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토론회를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각께서 계시어 조선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 책임자 장 마리 람브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될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이다.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를 김일성조선으로, 자기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부르고있는 것은 주석께서 쌓으신 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고 불멸하기때문이다. 조선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필승불패의 보검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신분도 다름아닌 김일성주석이다. 주석의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

가신다. 조선의 현실에서 주석의 혁명력사는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조선인민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석을 잊지 못하며 길이 흠모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신문은 《불패의 군사강국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이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될수 있게 한 근본담보이다. 이기께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이 차던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 시키시였다. 이기께서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자위적군사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시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3월 25일부는 《주체사상은 승리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존엄높은 태양민족의 긍지

근로 단체들에서 경축 모임 진행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8돌을 즈음하여 청년학생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6일 청년중앙회관, 당창건기념탑광장,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청년학생들, 직맹원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경축 모임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부의 보고에 이어 평양 326전선광장 로동자 리일현, 만경대구역 칠곡남새전문농장 농장원 김명심,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학생 박승철, 대동강구역청년동맹 1비서 박호성이 연설하였다.

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될 특기할 사면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최대의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앞당겨 나가는 경여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생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현상구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대동강구역직맹위원장 리태룡, 평양방직공장 직맹위원장 김용남, 서평양기관차대 직맹조급단체위원장 임인석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존엄높은 김일성동지께서 강성대국의 문명을 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8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여하는 장군님께서 독자적인 신군형병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성세, 불매의 보루로 공고히 하시어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책방식으로 정리하시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평도체계를 확립하시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 모임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나영미녀맹위원장, 나영미녀맹위원장, 나영미녀맹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김철의 신념과 본래, 실천력으로 공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8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여하는 장군님께서 독자적인 신군형병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성세, 불매의 보루로 공고히 하시어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책방식으로 정리하시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평도체계를 확립하시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 모임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나영미녀맹위원장, 나영미녀맹위원장, 나영미녀맹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김철의 신념과 본래, 실천력으로 공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 진행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군형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식인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커다란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흥성번영에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성 이사회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천은주, 인민경제대학 연구사 서재영, 리파대학 학부장 김지용에게 후보원사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창하,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박철, 김일성종합대학 품류비과학대학 학장 최정호, 강좌장 정만홍,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부장 김성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원들인 석태형, 정리석, 의학과학원 연구사 리희숙, 조선직접자총합맹부 소속 박태영, 함흥화학공업대학 소장 주명철 등이 교수의 학직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김명철, 교원 김일성,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최복환,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심선근, 김기국, 교원 김은섭, 인민경제대학 소장 최철, 교원 심상부, 평양영국어대학 강좌장 소희조, 평양의국어대학 부학부장 리기호,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변명우,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소장 리희남, 교원 한금실, 리파대학 실장 함상민, 정중태 리파대학 실장 최홍우, 국가과학원 부부장 리동철, 실장들인 강준봉, 윤명, 연구사 권영애, 책임부원 김영선, 생물공학분원 실장 정희명, 사회과학원 부부장 심승진, 중앙교육간부정치교육 강좌장 최영철, 경제철학연구소 실체원 황성철, 회령시인민위원회 부원 최희부, 중앙수출입물품사업소 검사직역원 신동훈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67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수여되었다. 이어 결의토론회가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 예술선전대경연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선전대경연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예술선전대경연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뜻과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고조적건설전에서 대중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열정을 심어주고 태혁신, 대비악에 고무추동하는 예술선전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합창 《태양절 불멸절》, 독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가야금병창 《꽃을 딴 노루부르네》 등의 종목들이 출연자들은 이바기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경여하는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경여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군형도나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하는 개가를 울려가려는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시 이야기 《조선의 속도》, 선동곡 《꽃을 딴 노루부르네》, 주사노래 《주체적 제의이야》를 비롯한 종목들이 좋은 평을 받았다. 선동곡 《양보하지 말자》, 찬창가 《큰마로》, 선동이

아기 《꽃을 딴 노루부르네》, 시랑송 《백두산시는 계속된다》 등 정격대대가 뚜렷하고 형상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참가자들에게 높은 감명을 주었다.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선전대경연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한편 경연기간 참가자들은 평양시 10만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전투장면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아 대중의 격정적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한편 경연기간 참가자들은 평양시 10만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전투장면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아 대중의 격정적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쿠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

주조 쿠바공화국대사관에서 6일 최근 쿠바정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신문, 통신기자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쿠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발언하였다. 그는 블라야 히론전투승리 50돐과 쿠바공산당 제6차 대회를 경축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쿠바는 미국의 반구바봉쇄책동을 반대하고 미국강요에 부당하게 감금되어있는 5명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쿠바기록영화 《쿠바의 논거》가 상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파키스탄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 진행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6일 조선파키스탄친선 평양 6월 9일공화국학교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아리리 마호무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박경일 조선파키스탄친선협회 부위원장과 협회성원들, 학교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학교의 연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조선과 파키스탄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한 이바기를 나누었으며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았다. 평양에서 조성길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준비사업 활발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만민의 지향과념이 위인정신으로 노래되어 울려 퍼져 이번 축전이 보다 의미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평양시민들에게 남새와 과일도 신선한것을 늘 딸구지 말고 공급하여야 합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에서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딸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해줄때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해결방도와 대책적인 문제를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라. 평양시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수도시민들을 위한 남새수송준비를 끝냈다

높이 받들고 시민들에 대한 남새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국인의 일꾼들은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애써 가진 남새들이 한도시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수도시민들에게 가당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길, 리지남, 김학철, 정동진등주체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은 수송이차 공급이 어려운 과일을 자라를 가지고 수송수단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사업의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도사업과 평가사업을 따르세우는 한편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국인의 일꾼들은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애써 가진 남새들이 한도시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수도시민들에게 가당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길, 리지남, 김학철, 정동진등주체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은 수송이차 공급이 어려운 과일을 자라를 가지고 수송수단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사업의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도사업과 평가사업을 따르세우는 한편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국인의 일꾼들은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애써 가진 남새들이 한도시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수도시민들에게 가당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길, 리지남, 김학철, 정동진등주체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은 수송이차 공급이 어려운 과일을 자라를 가지고 수송수단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사업의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도사업과 평가사업을 따르세우는 한편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상업관리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국인의 일꾼들은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애써 가진 남새들이 한도시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수도시민들에게 가당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길, 리지남, 김학철, 정동진등주체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은 수송이차 공급이 어려운 과일을 자라를 가지고 수송수단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태양절기념우표가 나왔다

【평양 4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태양절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 (묶음권지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기념》이라는 글씨가 찍여진 묶음권지에는 경여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대통령과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불멸의 꽃 김일성화화과꽃뿔뿔, 장미 등 선물품들이 형성되어 있다.

기념우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경여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기념 우표

전국서예축전, 송화미술전시회 개막

태양절기념 전국서예축전이 개막되었다. 축전장에는 송시 《평명성찬가》를 지으시는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시제는 영원히 빛날것이다!》, 녀학자의 서예솜씨를 보여주는 이바기수령님과 경여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 《나아인 수제를 찾으시오!》가 모셔져있다. 전문가부문, 대학,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부문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축전에는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며 결세위원들의 위대성과 경여하는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무를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350여점의 서예작품이 출품되었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날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후손단대의 번영을 위한 만민의 토대를 마련하신 경여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영원한 태양!》, 《만경대의 불》, 《백두산의 천리길》, 《꽃은 기쁨》, 《태양과 인민》 등의 작품들에 담겨져 있다. 【조선중앙통신】

서예작품이 출품되었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날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후손단대의 번영을 위한 만민의 토대를 마련하신 경여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영원한 태양!》, 《만경대의 불》, 《백두산의 천리길》, 《꽃은 기쁨》, 《태양과 인민》 등의 작품들에 담겨져 있다. 【조선중앙통신】



서예축전 및 미술전시회

이채롭게 진행된 4월의 명절료리축전

제16차 4월의 명절료리축전이 4일부터 6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성, 중앙기관, 각 도들에서 선발된 45개 단위로 참가한 이번 축전은 지방특산료리와 명료리, 대중봉사료리, 외국료리, 료리과학기술 성과파로 전시, 료리사, 점대문화를 기술기교경연 및 시범출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바치신 결세위원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각지 봉사자들이 만든 1300여 점의 특색있는 민족음식과 각종 료리를, 150여건의 과학기술성과파로들이 출품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우리 민족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산천어남새소림, 청취쌀밥, 산나물산채 등 내놓은 품종이 6일대에 진행되었다. 강능수내각부총리, 김봉철 삼업상,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참가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축전성적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대한 시상이었다. 축전은 현상발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봉사시설들이 손색없이 갖추어진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등이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은 배우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스물일곱번째로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전은 국제적인 예술축전으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성황리에 진행될 것이다. 이들의 마을에 떠날떠려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우리 민족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산천어남새소림, 청취쌀밥, 산나물산채 등 내놓은 품종이 6일대에 진행되었다. 강능수내각부총리, 김봉철 삼업상,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참가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축전성적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대한 시상이었다. 축전은 현상발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봉사시설들이 손색없이 갖추어진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등이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은 배우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스물일곱번째로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전은 국제적인 예술축전으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성황리에 진행될 것이다. 이들의 마을에 떠날떠려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평양고려호텔

